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우리 사회의 대응 정책 연구

-[이웃집 찰스] 속 이주민 차별 양상 분석을 통해-

김민수 · 기준성 · 최민지*

(수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 성균어학원)

1. 들어가기
2.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 2.1. 선행 연구
 - 2.2. 이론적 배경
3.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 속 이주민 차별 양상 분석
 - 3.1. 다문화사회로 진입 단계에서의 양상 분석
 - 3.2. 다문화사회로 전환 단계에서의 양상 분석
4.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다문화 TV 프로그램 『이웃집 찰스』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사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엿볼 수 있었다. 방송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였다. 첫째, 이주민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겪는 언어장벽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언어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이주민이 출연하는 방송'에 대한 더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셋째, 선주민 배우자 대상 상

* 제1저자: 김민수, 교신저자: 기준성, 공동저자: 최민지

답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주제에 다문화 TV 프로그램, 이웃집 찰스, 다문화사회, 이주민, 선주민

1. 들어가기

2024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주 배경 구성원의 비율이 5%를 넘어서며,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다.¹⁾ 대한민국의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자연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2023년 기준 0.72명(통계청, 2024)에 불과하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는 계속 유입되고 있으므로 이주 배경 구성원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다문화 수용성이 부족하고 이주 배경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권승, 2010). 한국 사회가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주 배경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차별부터 우리 사회에서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문화를 소재로 하는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주 배경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그간 『다문화 고부 열전』, 『이웃집 찰스』 등 이주 배경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도 방영되어 왔는데 현재 지상파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주 배경 구성원에 관한 프로그램은 KBS1의 『이웃집 찰스』 하나이다.²⁾ 『이웃집 찰스』는 한국 사회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 12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인 265만 783명으로, 전년 같은 월보다 5.7% 늘어났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19%에 해당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다문화 인구, 장기 체류 외국인 등 이주 배경 인구의 비중이 5%를 넘어서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2) 『이웃집 찰스』는 2015년 1월부터 10년 넘게 방송해온 다문화 소재 지상파 프로그램

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 배경 구성원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경험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³⁾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 진입 원년인,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방영된 총 20편에서 이주 배경 구성원의 삶의 양태를 관찰하며, 이주 배경 구성원이 문화적 소수자이거나 약자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다.⁴⁾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 배경 구성원이 겪는 차별과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과 정책을 여러 방면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2.1. 선행 연구

이 연구는 『이웃집 찰스』에서 나타나는 사회 전반의 다문화주의 양상과 이주 배경 구성원이 겪는 문제적 양상을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할 다문화 정책 방안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다문화 미디어 관련 연구와 다문화사회 이행 단계와 관련한 연구, 다문화주의에 대해 논의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 연구 내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먼저 다문화 프로그램 내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기준성 · 김민수 ·

으로서 연구의 주제가 될 만하다.

- 3) 『이웃집 찰스』 홈페이지에서 밝힌 기획 의도는 다음과 같다. “낮선 한국 땅으로 온 외국인들! 취업, 학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이방인들의 생생한 리얼 적응 스토리! 생김새는 우리와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한국 땅에서 취업, 결혼, 육아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각자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과 그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교감을 시도해 본다!”
- 4)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해인 2024년 1월에 방영한 418회부터 438회까지의 방영분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420회는 신년 스페셜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민지, 2019; 김수연, 2016; 장민정, 2014)에서는 TV 방송 내 고부 담화에 존재하는 차별적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한국 문화를 강요하는 동화주의와 결혼이민자의 원 가족을 배제한 한국 가족의 가족주의의 강요 등이 차별적 요소를 만들어냄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들은 여성, 며느리라는 특수한 집단에 대한 연구이나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주 배경 구성원이 문화적 소수자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 방송에서 드러난 다문화주의에 관한 연구 중 프로그램 내 이주민 재현에 대한 연구(정의철 · 정용복, 2016; 김초희 · 김도연, 2019)에서는 방송에서 이주민을 재현하며 인종과 다문화 구성 유형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생산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요소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이은별, 2020)에서도 이주민의 배경에 따른 고정된 이미지가 생산되고 있다는 점과 한국형 다문화주의(한국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시청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수용성을 높이게 된다고 하였다(허윤철 · 임영호 · 조윤용, 2018). 다문화 미디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본 바 한국의 다문화 미디어는 긍정적 다문화주의로 발전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문화사회 이행 단계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이행 단계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구(김이선, 2008; 권유경, 2008; 장미혜 외, 2008; 조석주 · 박지영, 2012)와 한국 외 주요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한 연구(김미나, 2009; 최종렬, 2010) 등이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 상호 연계되지 못함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 간 장기적 · 종합적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더불어 정부 정책(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외에도 대중의 의식 변화에 대해서 논하였다. 의식 변화는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와 '다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미디어 노출 등을 포함한 생활 속 다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2000년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여성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기 시작하면서 장기체류 외국인 실태 조사와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본격적 논의(윤인진, 2008)가 시작되었는데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문은 실태를 분석한 연구를 비롯하여 정책과 교육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룬다. 다문화주의의 실태에 관한 주요 논문(권승, 2010; 김가영·정제영·박나경·정수현 외 2022; 심승우, 2022)에서는 Troper와 Jenks, Lee, & Kanpol 등의 다문화주의 유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주의 실현이 면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점 극복 방향을 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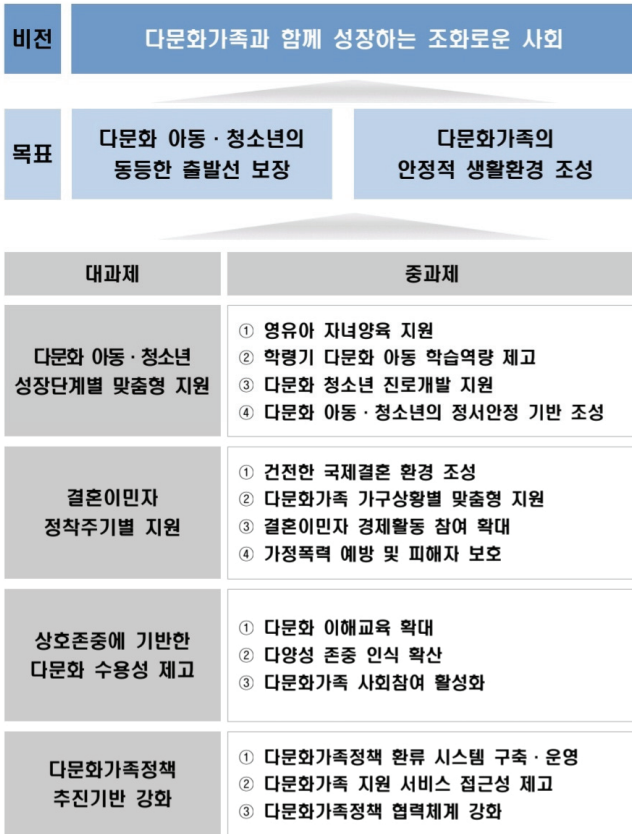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사회 조건 충족 여부와 이와 관련한 사회적 제도 구축 정도는 현재 한국 사회 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미디어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 이행 단계를 살펴보고 문제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이론적 배경

이 절에서는 『이웃집 찰스』를 분석할 이론적 틀로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 이행 단계’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Troper(1999)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다문화사회가 갖춰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Troper에 의하면 다문화사회는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평등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⁵⁾ 한국은 2024년에 전체 인구에서 다문화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서면서 양적·외적으로는 다문화사회가 되

5) 윤인진(2007: 252)에서 재인용.

었지만, 한국 사회가 Troper(1999)에서 제시한 다문화사회의 조건을 질적·내적으로도 갖추고 있는지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Troper가 제시한 다문화사회의 조건에는 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3년-2027년)이 진행 중이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위와 같이 4가지의 대과제, 14가지의 중과제를 명시하고, 각 과제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장미혜(2008: 47)에서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단계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단계(1단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단계(2단계)’, ‘다문화사회의 정착 단계(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현상과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단계별 현상과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문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단계	현상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문제
1단계: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단계	이주민이 전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가시적 비중 증가	주류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통용되 던 민족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혼란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심리적 저항과 차별적 태도 행동의 다양성이나 가치관의 상이에 따른 규범의식의 저하
2단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단계	다문화가족의 형성 -체류 기간의 연장에 따라 독신의 이주자들이 서서히 가족을 형성, 출신국별 이주민 공동체 형성 (집단적 거주지 출현)	다문화가족 내 가족구성원 간의 무 관심과 정서적 유대관계의 약화 언어장벽으로 인한 가정 내의 의사 소통 기능의 약화 다문화가족의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 체현상 소수의 인종공동체의 사회적 고립 혹은 사회적 빈곤계층화 인종에 따른 소득격차로 인한 새로 운 차원의 사회적 불평등 심화 사회적 일체감의 해체
3단계: 다문화사회의 정착 단계	다문화가족 내에서 2세가 사회 진출하며 이주민 공동체 재생산	이주민 2세의 인종적 정체성의 혼란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부담의 증대(조세, 의료비와 교육비,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부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단계	현상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문제
		이주민 2세의 경우 가족 내에서 사회화를 통해 습득된 주류 사회의 문화사회에서 혼란과 갈등, 이들 집단의 범죄와 실업문제 가시화 인종 간 사회적 마찰의 증대 사회적 일체감의 해체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 표면화(집단 소요 등)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가중

출처: 장미혜(2008)

한국 사회가 성숙한 다문화사회가 되려면 다문화사회로 이행해 가는 중에 부딪힐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제어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막 다문화사회가 되었으므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행 단계 중 1단계(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단계)와 2단계(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단계)의 사회 문제가 혼재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거나 앞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웃집 찰스』 속 이주 배경 구성원이 부딪히고 있는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해당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이주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그리고 장미혜(2008)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단계별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이웃집 찰스』에서 다문화사회 이행 단계 1단계(진입 단계)의 사회 문제가 나타나는가?
- 둘째, 『이웃집 찰스』에서 다문화사회 이행 단계 2단계(전환 단계)의 사회 문제가 나타나는가?
- 셋째, 『이웃집 찰스』에서 나타난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이웃집 찰스』의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다문화주의에 관한 인식을 드러내며 한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집 찰스』 진행자의 언행과 출연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다문화주의 양상과 그로 인한 사회 문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국가 단위의 정책 계획에서 제시하는 추진 과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와 문제 양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⁶⁾ 이 연구에서는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 관련 문제적 양상을 분석하며, 연구 문제의 답을 찾아갈 것이다.⁷⁾

3.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 속 이주민 차별 양상 분석

3.1. 다문화사회로 진입 단계에서의 양상 분석

3장에서는 『이웃집 찰스』 진행자의 언행과 출연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들여다보며, 다문화사회 이행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막 다문화사회가 되었으므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단계’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주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장미혜(2008)에 의하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단계’에서는 ‘주류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민족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혼란’,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심리적 저항과 차

6) 이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제4차 기본계획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또 『이웃집 찰스』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유학생이나 1인 가구 이주민을 다룬 방송 회차도 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룰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방송 출연자의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7) 『이웃집 찰스』의 시청자들은 언어를 통하여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다. 언어는 생각을 실어 나르고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조지 레이코프, 2015). 이 연구에서는 출연자와 진행자들의 담화에 주목하여 다문화주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별적 태도’, ‘행동의 다양성이나 가치관의 상이에 따른 규범의식의 저하’의 사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웃집 찰스』에서는 이 중 ‘민족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혼란’과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심리적 저항과 차별적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편 친구(김선미): 찬희 씨가 걱정 많이 하더라. 내가 말 걸었는데
그 사람이 좀 쌀쌀맞게 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어?
리리스: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적 있었어요. 외국인 사람 이구나
그래서 대답도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후에 한국
사람 만나면 모든 사람 만나면 약간 그런 생각이 자주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 생각 있나요? 이렇게
리리스: 그런데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시장 갔을 때, 한
아줌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매매 결혼했냐고. 그래서 저도 놀
랐어요. 그때는 리리스: 재이 엄마가 외국 사람이란 걸 알면 그
들은 재이한테 인종 차별 있냐고 그런 생각났어요. 그래서 만약
에 다른 엄마들 만나면 말 많이 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418회 인도네시아 리리스 24.01.02〉

위의 대화를 보면, 리리스 씨는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화하기 싫은 대상으로 여겨졌고,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여성이라는 이유로 매매 결혼을 했느냐는 인종 차별 발언을 들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리리스 씨는 자신의 자녀도 인종 차별을 당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선주민의 언행은 이주 배경 구성원을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카밀라: 추운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라도 살짝 이쪽으로 보게 되면
그게 윈 (성공)이죠.
진행자: (카밀라 씨가 버스킹을 준비하는 영상을 보며) 일단 카밀라 씨는
외모 부터가 관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진행자 2: 그렇죠.

〈419회 쿠바 카밀라 24.01.09〉

위의 대화를 보면, 프로그램 진행자는 카밀라의 외모가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고 다른 진행자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주 배경 구성원의 외모가 선주민과 다르다는 이유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발언하는 것은 이주 배경 구성원을 사회 일원으로 보지 않고 타자로 보는 인식을 나타낸다.

진행자: 열아홉 축구 소년 사무엘 선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무엘: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FC서울 U-18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에 온 지... 19년 된 거 맞아요?
사무엘: 네,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진행자: 그러면 국적은 어딘가요?
사무엘: 국적은 지금 코트디부아르로 되어있어요.

〈425회 코트디부아르 사무엘 24.02.20〉

위의 대화를 보면, 진행자는 사무엘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듣고, 사무엘에게 한국에 온 지 19년 된 것 맞느냐고 말해 사무엘을 무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사무엘이 한국 태생임을 들었음에도 사무엘의 피부색을 보며 국적을 확인하고 있다. 물론, 사무엘의 국적이 코트디부아르로 밝혀졌지만, 어눌한 말투와 검은 피부색을 근거로 한국 거주 기간과 국적을 묻는 것은 언어 숙달도와 피부색으로 국가의 일원 여부를 판단하는 모습과 차별적 태도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하니프의 장모: 애가 아프가니스탄 봉사를 다녀오더니 하니프를 데려왔 다니까요.
하니프의 한국인 아내: 엄마 처음에 하니프랑 결혼을 반대하셨잖아요.
하니프의 장모: 아니 처음에 시골 사람같이 하고 왔잖아.
진행자: 서로가 서로를 시골 출신이라고 생각했네. 잘 모르니까.
자막: 서로의 국가 정보 부족으로 어찌면 더 힘들었던 결혼 과정-
하니프의 장모: (하니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입는 전통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거 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막 그랬거든요?

〈428회 아프가니스탄 하니프 24.03.12〉

위의 대화를 보면, 장모가 예비 사위인 하니프를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를 회상하며, 아프가니스탄 전통 옷이 이상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타 문화권 사람이라는 이유로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고 딸에게 면박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장모(선주민)의 발언은 이주 배경 구성원의 모 문화를 무시하고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저항과 차별을 보여준다.

차예카테리나: (자녀들에게) 고려인 친구들만 있으면 한국어를 빠르게 배울 수 없어요. 한국에 계속 살고 싶는데 (그럼) 아이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사했어요.

(중략)

차예카테리나: 우리 언어와 학교 문제 때문에 ‘함박마을’에서 이사했어요. 우리(저와 남편)는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 1세대라고 봐야 해요.

자막: 외국인으로 여겨졌던 정착 1세대 고려인들

차예카테리나: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고려인 4세) 아이들이 한국인으로 자라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한국어, 문화 배워야 해요.

내레이션: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은 모든 고려인 가정의 과제입니다. 아이들만큼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436회 함박마을 고려인 24.05.07〉

위에서 차예카테리나 씨가 한 ‘우리는 한국에 들어온 1세대라고 봐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어요’라는 말을 보면, 자녀들만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1세대 고려인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타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차예카테리나 부부가 이사까지 불사하였는데 이러한 동화를 위한 노력

www.kci.go.kr

은 한국 사회에 이주 배경 구성원에 대한 심리적 저항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의 방증이 될 것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대과제 중 하나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그에 따른 중과제로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3.1절에서 다룬 방송 담화에 드러난 차별 양상을 고려하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기업,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일반 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는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다누리배움터(danurischool.kr)’에 따르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기관, 단체이며, 교육 신청 자체를 기관회원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18회 방송에 등장하는 리리스 씨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리리스 씨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3.2. 다문화사회로 전환 단계에서의 양상 분석

장미혜(2008)에 의하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단계’에서는 ‘다문화가족 내 가족구성원 간의 무관심과 정서적 유대관계의 약화’, ‘언어장벽으로 인한 가정 내의 의사소통 기능의 약화’, ‘다문화가족의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 현상’, ‘소수의 인종공동체의 사회적 고립 혹은 사회적 빈곤계층화’, ‘인종에 따른 소득격차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불평등 심화’, ‘사회적 일체감의 해체’의 사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웃집 찰스』에서는 이 중 ‘언어장벽으로 인한 가정 내의 의사소통 기능의 약화’, ‘소수의 인종공동체의 사회적 고립 혹은 사회적 빈곤계층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막: 번역기도 소용없는 부녀 소통 장애-

진행자: 이렇게 보니까 사할린 한인인 철재 씨보다 아내인 러시아인 에바 씨가 한국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철재 씨, 게으르신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나쁘신 거예요? 왜 한국말을 아직도 못 배우셨습니까?

신철재: 음...(제가) 말을 잘...

신철재의 딸: 엄마, 아빠, 말하지 마!

-러시아어 벽 탓? 평소에도 대화 적은 부녀-

신철재의 딸: 한국어로..

-부모님과 함께할 때면 늘 먼저 제안하는 한국어 대화-

신철재의 딸: 좀 거리감이 느껴지니까요. 아무래도

신철재: (한국어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예요.

신철재의 딸: 저는 약간 이렇게 혼자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423회 사할린 신철재 24.02.06〉

위의 대화를 보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신철재 씨 부부와 한국말을 잘하는 신철재 씨 딸 간에 평소에 대화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 장벽은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고, 자녀가 부모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만든다.

진행자: 우리 켄자 씨는 한국에 와서 한국어도 잘하죠, 요리도, 시부모님께 잘하죠. 한국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 00 씨(남편)는 어떻게... 모로코 말을 배워본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켄자의 남편: (모로코 말은) 간단하게만 할 수 있고...

켄자: 사실 오빠가 모로코 말까지 배우는 것은 바라지 않아요. 다만 모로코 명절, 문화 정도는 알아줬으면, 공부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줬으면 해요.

〈424회 모로코 켄자 24.02.13〉

위의 대화를 보면, 이주민인 켄자 씨는 한국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지만, 켄자 씨의 남편은 아내의 모국인 모로코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결혼 이민자인 아내의 한국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선주민인 남편이 어느 정도 아내의 모어를 알아야 좀 더 온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이주 배경 구성원만의 일방적인 노력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 간의 언어적 소통과 문화적 소통에 장벽을 만들 것이다.

(아침 식사 시간에 대화: 뷰렌은 몽골 말로, 아들은 한국어로 대답)
자막: 몽골어를 척척 알아듣는 준성(뷰렌의 아들)
제작진: 아버님이랑 어머니가 몽골어로 질문하시고 준성이는 한국어로 대답하네요?
준성(뷰렌의 아들): 엄마, 아빠, 누나는 몽골인이고 저는 한국인이예요.
제작진: 왜 너만 한국인이야?
준성(뷰렌의 아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430회, 431회 몽골 뷰렌 24.03.26, 24.04.02)

위의 대화를 보면 가족이 소통할 때, 이주민인 뷰렌은 몽골어로 질문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뷰렌의 아들은 한국어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이 서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더라도 가장 능숙한 언어가 다르므로, 상호 간 의사소통은 온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뷰렌의 아들의 발화 속에서 능숙한 언어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별로 국가·민족 정체성을 달리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내의 언어 장벽과 상이한 민족적 정체성은 가정 내에서 소통의 장애를 만들어낼 개연성이 크다. 이주 배경 구성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 내에서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출연자 아론이 새로운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벼루 장인을 찾아간 상황)
벼루 장인: 뭐 할라고 나를 찾아온 거야?
아론: 나는 (장인의) 초상화 그리고 싶어요.
벼루 장인: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아론: 너는 일하고 나는 사진 찍을 거예요.
벼루 장인: 할아버지한테도 너라고 하는구나. 알았어.
(진행자들 크게 웃음)
진행자: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작업을 하려면 존댓말부터 배워야겠어요.
아론: 네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426회 미국 아론 24.02.27〉

위처럼 이주 배경 구성원은 사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어른에게 반말을 쓰는 실수를 하는 등 의사소통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실수가 이민자에 대한 선주민(주류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저항과 차별적 태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과제 중 하나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이며, 그에 따른 중과제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이다. 이미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실 또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등 언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 정책 접근성의 선행 과제는 서비스 인지율을 높이는 것이다. 위에서 다룬 방송분과 같이 다문화가족 내에 언어적인 장벽이 생기거나, 언어적 어려움을 가정 내에서 개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다만 언어 지원 정책의 존재를 모르거나 이용 방법을 모르는 이주민만 줄어들어도 이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진행자: 리리스 씨는 지금 한국인 친구가 한 명도 없으신 건가요?

리리스: (남편 가리킴) 네. 그냥

리리스 남편: 제 친구들

(중략)

리리스 남편: 우리 이사 온 지도 좀 됐는데 자기 지금 만나는 친구도 없고 한국에서 애들 키우는데 내가 언제까지 계속 활동할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엄마들이랑 어울릴 수 없잖아. 그것도 이상하잖아. (남편이 어린이집 학부모 위원)

진행자: 이상하지!

리리스: 친구 사귀는 거 오빠 너무 쉽게 말하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어려운 행동이야.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 나도 다른 사람한테 친하고 싶고 친구도 사귀고 싶은데 좀 어려워.

리리스 남편: 한국에 산 지 지금 몇 년, 한두 달 된 거 아니잖아.

리리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가 외국인 사람이잖아. 그리고

한국어도 너무 완벽하지도 않고 나랑 대화하기 싫을 거 같아.

〈418회 인도네시아 리리스 24.01.02〉

위의 대화를 보면, 결혼 이민자인 리리스 씨는 한국에서 산 지 몇 년이 지났고, 거주지로 이사한 지도 몇 달이 넘었지만,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이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리리스 씨는 학부모 공동체에서 다른 학부모와 어울리지도 못하고 친구도 사귀지 못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카밀라 친구: 고향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 아빠, 엄마 해결 방법 알려주는데

카밀라: 동네 너무 멀고 그러면 진짜 내가 큰일 나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

(중략)

카밀라: 생일날, 크리스마스 이럴 때 아니면 아플 때 진짜 제일 많이 생각나요. 특히 엄마. 엄마들한테는 좀 억울한 거죠. 여기 와서 처음엔 좀 외로워 가지고 진짜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서 쿠바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돌아갈 뻔했고 버티는 게 맞나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419회 쿠바 카밀라 24.01.09〉

위의 대화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 카밀라 씨와 카밀라 씨 친구는 큰 일이 나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 막막해하고, 생일,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이나 아플 때, 외로움에 시달려 유학 생활을 접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 등 이주 배경 구성원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미혜(2008)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단계·전환 단계’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예시하지 않았지만, 『이웃집 찰스』 진행자의 언행과 출연자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 배경 구성원이 겪는 사회 문제나 어려움 중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더 있다. 그것은 이주 배경 구성원의 모 문화에 관한 선주민의 몰이해 문제 그리고 외국인 출입국·체류 제도의 문제이다.

이주 배경 구성원의 모 문화에 관한 선주민의 몰이해 문제는 주로 『이웃집 찰스』의 진행자, 출연진에게서 드러났다. 방송 진행자나 출연자는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므로 그들의 언행은 언중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결혼식 장면)

자막: 성대한 모로코 결혼식. 춤과 노래가 밤새도록!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진행자: 저 옆에 남자가 OO(남편 이름) 씨인가요?

켄자의 남편: 네.

켄자: 남편도 가마 태우고

진행자: 우와, 죄송한데 이 정도면 사이비 종교 교주 느낌인데...

(크게 웃음)

〈424회 모로코 켄자 24.02.13〉

이만기(출연자): 어떤 빵 드실래요? 하나 사 드릴게.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 빵을 먹어봐야죠.

나즈: 그런데 이 친구는 오늘 못 먹고.

민나: 금식하고 있어요.

이만기(출연자): 왜?

민나: 라마단 기간이라 해가 질 때까지 못 먹고 못 마셔요.

이만기(출연자): 어떡해. 내가 (주변을) 가려줄까? 밤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눈 꼭 감고!

〈435회 한국예술종합학교 2부 24.04.30〉

우리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모로코 결혼식의 신랑을 ‘사이비 종교 교주’에 빗대어 말하는 모습에서 이주 배경 구성원의 모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낮은 다문화 수용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민나에게 음식을 권하고, 식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임의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닌 이주 배경 구성원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큰 결례를 범한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웃집 찰스』에서는 이주 배경 구성원이 한국의 출입국·

체류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자주 나타난다. 이주 배경 구성원은 체류 자격 때문에 하나의 직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직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진행자: 전업 작가를 하면 되는데 와인바는 왜 하는 거예요?

카디르: 제가 준비하는 거는 F2 비자를 영주권으로 바꾸려고 했는 데...

자막: 안정적 작가 활동을 위해 영주권 준비 중인 카디르

진행자: 조건이 있지 않나요? 영주권 받으려면?

카디르: 조건 많죠. 일단 1년 수입이 8,500만 원 정도..

자막: 영주권 비자 취득 조건 (국내 체류 기간 5년 이상, 전년도 소득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

진행자: 8,500만 원이요? 영주권 문턱이 꽤 높네요. 이게 아마 기준을 세울 때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 때문인 것 같아요.

<421회 튀르키예 카디르 24.01.23>

로르: (졸업하고) 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비자가 없으면 일할 수가 없지.

나즈: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직업(촬영감독)이 취직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예요. (그런데) 프리랜서 비자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요새 진짜 고민이에요.

자막: 졸업을 앞두고 비자 고민이 큰 두 사람

제작진: (비자 문제가) 두 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즈: 사실 답답하긴 해요. 만약에 (제가) 노력 안 하고, 실력이 없는 거였으면 제 탓을 하고 “그래, 내가 못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했겠지만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좀 크죠.

로르: (비자 받으려고)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하고 있어요.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35회 한국예술종합학교 2부 24.04.30>

이처럼, 이주 배경 구성원은 본인과 가족의 출입국과 장기 체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이들의 한국 정주가 지역 소

떨 위기 대응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유학생 정책인 Study Korea 300K Project와 대학지원 정책인 RISE 사업을 연계하는 것도 이주민(유학생)을 지역 주민이자 인재로 보는 것이다.⁸⁾ 교육부와 일부 시범 지자체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를 도모하고 정주 정책을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적극적인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결론 및 제언

전술하였듯이 우리 사회는 2024년 인구 구성상 공식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이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고찰해야 한다. 대표적인 다문화 TV 프로그램인 『이웃집 찰스』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사회 이행 단계 중 진입 단계와 전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엿볼 수 있었다. 4장에서는 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⁹⁾ 또 그 문제 양상을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비추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첫째, 이주민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겪는 언어장벽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언어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고, 정책의 방향을 ‘이주민에게 수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 ‘선주민의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회차에서 이주민 개인과

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며, 교육부의 대학혁신 예산을 지자체에 이관한다. 부산, 대구,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참여한다. 또 2023년 8월 교육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여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Study Korea 300K 목표를 제시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 학업 - 취업 - 정주 각 단계별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두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정부 기관이 이주민(유학생)을 지역 주민이자 지역 인적 자원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9) 4장에서 제시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은 3장의 담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다. 따라서 담화의 일부를 이 장에서 재인용하였다.

그 가족이 한국어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¹⁰⁾

(전략)

신철재의 딸: 좀 거리감이 느껴지니까요. 아무래도.

신철재: (한국어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문제예요.

신철재의 딸: 저는 약간 이렇게 혼자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423회 사할린 신철재 24.02.06〉

위와 같은 다문화 가족 내 언어 문제는 2장에서 다룬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를 개인의 힘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한글학교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지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는 이주민이 이동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 등으로 이용 자격이 제한된다. 반면 한글학교는 개인 또는 한국 입국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주민들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3장에서 기술하였듯이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인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인지율 향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 정책별 규정 차이, 본인이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자라는 것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등을 활용한 정책 홍보에 힘써야 한다.

정수연의 남편: 인터넷에 보면 조금씩 토막토막 나와 있는 베트남어가 있는데, 모아서 책 한 권 분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말을 대충 조합을 하는 거예요.

〈427회 베트남 정수연 24.03.05〉

10) 3장에서 426회 미국 아론 편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경우에도 사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어른에게 반말을 쓰는 실수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위 방송 회차에서 출연자의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어를 익히기 위해 혼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마다 결혼이주민의 국적 분포를 파악하여, 다수의 이주민이 분포하는 국가의 언어를 한국인 배우자가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책은 ‘결혼이주민(특히 여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치우쳐 있다. 생각을 전환하여 한국인 배우자가 이주민 배우자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여러 회차에서 방송 진행자가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경솔한 발언을 하였다.¹¹⁾ 이주민이 주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선주민이 이주민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주민 대화 상대자에게 결례를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결혼식 장면)

자막: 성대한 모로코 결혼식. 춤과 노래가 밤새도록!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진행자: 저 옆에 남자가 00(남편 이름) 씨인가요?

첸자의 남편: 네.

첸자: 남편도 가마 태우고

진행자: 우와, 죄송한데 이 정도면 사이비 종교 교주 느낌인데...(크게 웃음)

〈424회 모로코 첸자 24.02.13〉

한국 사회의 주류 미디어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려면 방송 심의 규정을 개선하고 특히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4차 기본계획에도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중과제의 실행 방안으로서 ‘방송 심의 규정에 의거,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6항은 다음과 같다.

11) 3장에서 기술하였듯이, 435회 한국예술종합학교 2부에서도 방송의 진행자는 아니지만 일부 출연진의 문화 몰이해로 인한 음식 강요 등이 묘사되었다.

방송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 방송의 진행자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 조항 자체도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현재 과거에 비해 이주민을 소재로 하는 방송이 늘어났다. 그러므로, '방송의 진행자는 모든 출연자의 모(母)문화를 존중해야 한다'와 같이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결혼이주민에 대한 선주민 배우자의 차별적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 선주민 배우자 대상 상담을 확대해야 한다. 아직까지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 비해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역할은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¹²⁾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이주민과 가장 가까운 '주류 사회'인 동시에, 가장 먼저 이주민을 차별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한국인 남성 배우자를 위한 상담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술한 언어 교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초점을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한국인 남성 배우자'로 옮겨야 한다.

진행자: 우리 켄자 씨는 한국에 와서 한국어도 잘하죠, 요리도, 시부모님께 잘하죠.

한국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 00 씨(남편)는 어떻게.. 모로코 말을 배워본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켄자의 남편: (모로코 말은) 간단하게만 할 수 있고...

켄자: 사실 오빠가 모로코 말까지 배우는 것은 바라지 않아요. 다만 모로코 명절, 문화 정도는 알아줬으면, 공부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줬으면 해요.

<424회 모로코 켄자 24.02.13>

위 방송 회차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주민 여성의 노력이 한국인 남편의 노력보다 큰 것이 드러났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이

12)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중 다문화 혼인 유형별 규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남자+외국인 여자의 혼인은 66.8%/다문화 출생 유형별 규모 통계에서 한국인 아버지+외국인 어머니의 비율은 61.0%이다. 남성보다 이주민 여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다. 다만 다문화 출생 유형에서 '외국인 아버지'의 비중은 2020년 13.2%, 2021년 15.4%, 2022년 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족부, 2022)에 따르면,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느낀 적 있다는 응답이 52.4%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또 배우자와 다툰 원인 중 1위가 사고방식과 가치관 차이(56.6%)였다. 설문 결과와 위의 방송 회차를 종합해 보면, 국제결혼 부부의 50% 이상이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그 문화 차이와 연결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 때문에 갈등한다. 위의 대화와 같이, 다문화 배경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 커질 것이다.

넷째, 이주민들의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 지역 선주민들의 차별적 태도를 줄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2)에 따르면, 가족을 제외하고 어려움을 의논하는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여가 혹은 취미를 같이 할 사람이 한국에 없다는 응답이 약 33%였다.¹³⁾ 결혼이주민 중 3분의 1은 한국에서 도움을 청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다. 또한 모임 참여 경험에서도 22.9%가 ‘모임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모임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상당수의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¹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같은 지역 거주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웃집 찰스 방송에서는 지역 선주민들이 이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모습도 묘사되었다.

자막: 오늘은 수연 씨가 쓰는 날-

진행자: 오, (가게 일 도와주는 이웃들) 그분들 아십니까? 아~식사 대접하는구나!

정수연: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바쁘지 않은 날에는 약속 잡아서, 뭐. 아주 비싼 음식도 아니지만 그게 정이니까.

자막: 이모들 앞에서는 수다쟁이가 되는 수연 씨-

진행자: 수연 씨를 응원한 든든한 지원군의 정체는 바로 동네 이웃

13) 항목별로 25~39%

14) 실제로 3장에서 다룬 418회 방송의 리리스 씨는 문제를 상의할 한국인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들이었습니다. 도봉구 창동만의 문화인가요? 아니면 수연 씨가 잘해서 그런 건가요?

진행자: 수연 씨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모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수연: 한국에 있는 엄마.

〈427회 베트남 정수연 24.03.05〉

위의 방송분에서는 출연자(정수연)가 지역 이웃들과 사회적 관계 형성이 매우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¹⁵⁾ 그 성공 요인이 직접적이든 종교적이든 중요한 사실은 출연자의 거주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2004년 이후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외국인=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외국인도 지역 주민이라는 관점으로 ‘다문화 공생’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의 특징은, 지방정부, 기업, 지역 주민이 다문화교육을 전개하는 등 지역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¹⁶⁾ 한국의 지역 자치단체도 해당 지역의 이주민들을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에 나서야 한다.¹⁷⁾ 3장에서 기술하였듯이, 제4차 기본계획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신청을 독려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 이수 비율에 따라 관련 예산 사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사실상 지역마다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국적 비율이나 구성양상이 다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우리지역 맞춤형 이해교육’ 또는 상호 이해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¹⁸⁾

이상과 같이 『이웃집 찰스』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이주민 차별 양상

-
- 15) 출연자의 시모와 같은 성당에 다니는 이웃들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 16) 일본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문화 공생 정책을 시행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업무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공한다. [해의 다문화정책②-일본] 기사 참조(아시안타임즈, 2020.07.11.)
- 17) 한국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면 이주민들 스스로 지역 구성원이 되려는 태도가 강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캐나다 등의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 대학 졸업 후 일정 기간 근무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력이민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 18) 민기채(2024)에서도 지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도 제안하였다. 최근 미디어 향유의 수단은 TV에서 SNS, 유튜브(쇼츠)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SNS나 유튜브 콘텐츠 속 다문화주의를 분석하여 이 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이해하며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연구가 그러한 화합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승(2010).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다문화주의의 실체분석에 관한 연구 : Harold Troper의 다문화주의 정의에 기반하여, <21세기정치학회보> 20(2), 55-75쪽.
- 권유경(2008). 다문화사회에 바람직한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책방향,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기준성 · 김민수 · 최민지(2019). 결혼이민자 소재의 TV 프로그램 담화 속 차별적 요소 분석-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6(3), 1-27쪽.
- 김가영 · 정제영 · 박나경 · 정수현(2023). 다문화교육 정책의 다문화주의 유형 분석 (2006-2022), <교육문화연구> 29(6), 25-45쪽.
- 김미나(2009).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행정논총> 47(4), 193-223쪽.
- 김수연(2016). TV 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에 나타난 고부갈등 요인 분석, 광주 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2008).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초희 · 김도연(2019). 한국 텔레비전 다문화 프로그램 속 다문화 구성원 및 외국인의 이미지 : 인종, 출신지, 다문화 구성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4), 66-109쪽.
- 민기채(20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기초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비교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14(1), 29-57쪽.
- 심승우(2022).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과제, <통일과 평화> 14(3), 347-386쪽.
- 아시안타임즈(2020). [해의 다문화 정책②-일본]일본의 다문화정책: '공생'하는 사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공생정책-, <http://asiantimes.kr/news/>

- view.html?section=86&category=103&no=1894(검색일: 2025.02.03.)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윤인진(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251-290쪽.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韓國社會學〉 42(2), 72-103쪽.
- 이은별(2020). ‘이웃집 찰스’의 조건 : 외국인 출연 방송 프로그램으로 본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 〈한국언론정보 학술대회〉 2020(11), 125-133쪽.
- 장미혜(2008).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젠더리뷰〉 10, 44-49쪽.
- 장미혜 · 김혜영 · 정승화 · 김효정(2008).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 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민정(2014).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휴먼 다큐멘터리 EBS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3), 67-86쪽.
- 정의철 · 정용복(2016). 다문화 재현과 이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및 정체성 : 제주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4), 39-67쪽.
- 조석주 · 박지영(201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지 레이코프(2015).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10주년 전면개정판], 와이즈베리.
- 최종렬(2010).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사회이론〉 37, 229-271쪽.
- 통계청(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통계청(2024). 2023 한국의 사회지표.
- 허윤철 · 임영호 · 조운용(2018). 텔레비전 다문화 프로그램 시청이 다문화수용성과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미디어경제와 문화〉 16(3), 7-41쪽.
- 관계기관 합동,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 Troper(1999). Multiculturalism. in: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997~
- 가족센터, www.familynet.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이웃집찰스, <https://program.kbs.co.kr/1tv/enter/charles/pc/detail.html?smenu=c8e571>

필자 소개

성 명 김민수
소 속 수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전자우편 1013min@naver.com

성 명 기준성
소 속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어교육학과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60
전자우편 z3230699@scau.ac.kr

성 명 최민지
소 속 성균어학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전자우편 weilexingfu@naver.com

Abstract

Study on Response Policies for Our Society's Transition into Multicultural Society

- Analyzing Patterns of Immigrant Discrimination Via [My Neighbor, Charles] -

Kim, Min-su · Ki, Jun-sung · Choi, Min-ji

(Suwon University, Center of Teaching&Learning · Digital Seoul
Culture Arts University · Sungkyun Language Institute)

By analyzing the multicultural TV program 'My Neighbor, Charles', we were able to identify issues that arise during the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broadcast analysis, we proposed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ly, it is essential to reduce the language barriers confronted by multicultural families that include immigrants. In order to implement this, we should increase awareness and accessibility of language support servic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add more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broadcasts featuring immigrants'. Thirdly, counseling services targeting host community spouses should be expanded.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areas where immigrants reside.

[Key words] Multicultural TV program, My Neighbor Charles, Multicultural society, Immigrants, Host community

투고일 2025. 02. 09 / 심사일 2025. 03. 12 / 게재확정일 2025. 03. 18

